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우리금융 보험·증권 등 '비은행 M&A' 절실

우리금융, 순익 8.6% 올랐지만
하나·농협금융에 3·4위 빼앗겨
메리츠금융에도 시총 역전 당해
우리은행 실적 의존도 90% 육박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나서야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보험사, 증권사가 없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이지만 M&A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증권사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9113억원으로 전년 동기(8392억원)보다 721억원(8.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 증대가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은 하나금융에 3위 자리를 내어줬고, 농협금융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온 4위 자리마저도 빼앗겼다.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1조10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농협금융은 94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대비 58.8% 급증했다.

4위 자리를 지켜온 우리금융은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주사 이익 순위에 변동이 생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긴 주요 요인은 경쟁사들의 비이자이익 증가가 꼽힌다.

하나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한 778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 외환매매익과 주요 관계사의 유가증권 등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매매평가익(4801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6.4%(2771억원) 증가했고, 수수료이익은 4452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 역시 비이자이익이 7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9%(4077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 운용 손익이 216.9% 늘어난 586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금융은 타 금융지주와 달리 보험사,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적 가운데 90% 이상을 우리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 여력은 약 7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증권사 인수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임종룡 회장도 증권사 인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시장에 마땅한 매물이 없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는 최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통합해 출범한 메리츠금융지주에 시가총액을 역전 당해 4대금융지주 명성에도 흠집이 났다.

지난 4일 기준 우리금융 시가총액은 8조4819억원으로 메리츠금융 시총(9조5155억원)보다 약 1조원가량 낮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은행 의존도를 탈피하지 않는 이상 금융지주 내 3위 싸움도 힘들어 보인다"며 "매물이 없는 대형증권사 인수보다는 보험사를 먼저 인수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증권사 인수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 매물로는 KDB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이 있다. 대형사인 롯데손해보험도 잠재적인 매물로 꼽히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우리은행, 어르신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상생금융 3·3 패키지' 일환

우리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오는 8일 어버이날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근원물가 여전히 높지만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도 높아져

>> 1면 '韓美 금리차 1.75%p...'서 계속

또한 높은 수익률을 쫓는 외국인 역시 국내 주식시장 등에서 투자 자금을 빼면서 외화유출과 수입물가 등이 올라 물가불안을 키우게 된다.

한은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전년 동월 대비)였다.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에 4% 아래로 떨어졌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9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물가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근원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5월 금통위서 금리 올릴까

물가 고공행진과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리스크(위험)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 금리인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

리 인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와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에서 이영종 사장(왼쪽 열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노고 인정 '영업대상 시상식'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인터넷 뉴 연금보험 출시
배라 등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

농협손보, 냉해 피해 과수농가 방문
최문섭 대표이사 "신속조사" 약속

삼성생명이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기념행사를 기획했다.

◆배스킨라빈스, 도미노 포테이토피자 세트 상품권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채널에서 '삼성 인터넷 뉴(NEW) 연금보험' 출시를 기념해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뉴 연금보험의 장점이 담긴 4가지 보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경우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도미노 포테이토피자 세트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 해약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이다. 또 5년납,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라이프가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한 행사를 단행했다.

◆영업가족 및 임직원 1100여명 참석

신한라이프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3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영업가족과 임직원 등 약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톱 클래스(TOP CLASS)'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건넸다. 진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났다"며 "단순히 상품 하나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라이프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이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한다.

◆전남 남주, 경북 의성 과수농가 방문

NH농협손해보험은 저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위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는 최문섭 NH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 손해 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냉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작과 불량 등의 피해를 본 과수들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약속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냉해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김정신 기자 kimsan119@

신협, 상반기 51명 내외 신입공채 실시

모집 소재 지역인재 우대 채용
연령·학력·전공 등 제한 없어

신협중앙회는 '2023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신입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 규모는 총 28개 신협 51명 내외다. 공동채용제도는 중앙회의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채용 절차를 거쳐 전국의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채용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한다. 모집 신협 소재 지역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에 연령, 학력 및 전공 제한이 없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접전형 절차



를 보완했다. 외부 위원 선임 권고와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면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서의 객관성을 강화한 것이다.

오는 3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내달 4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전형을 치른다. 이후 같은 달 14일부터 모집 신협별 최종 면접 절차를 거쳐, 26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김정신 기자